



‘하늘의 신, 콘도르’를 생포하기 위해 울막에서 참목 중인 마을 청년들. 종일 울막 안에서 꼼짝 못하고 버티다가, 콘도르의 비행이 들려지는 저녁 첫 끼니를 해결한다.

안데스

북쪽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남으로 아르헨티나까지, 남아메리카 대륙 7,000킬로미터에 달하는 지구에서 제일 긴 산맥, 안데스. 그 산맥을 따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취락지가 산재해 있는 안데스는 가장 높은 고원에 다양한 고대문명을 꽃피웠던 땅이기도 하다. 12월 첫주부터 2주에 걸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다큐프라임 <안데스>를 통해 우리는 안데스 산맥 대장정에 나선다. 장중한 그 위용만큼이나 안데스 산맥은 워낙 험준하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해발 4,500미터. 도대체 이 높은 지대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의문인 이곳, 안데스. 차로 수 일을 달리고, 길이 험해 더 이상 바퀴 달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는 말에 짐을 싣고 두뼘뼘 걸어 올라 가는 수밖에 없다. 마음의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낯선 풍경과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 보자.

글 김민정 EBS 홍보팀 사진 · 김진혁 공직소



콘도르를 통해 부활을 꿈꾸는 안데스

3부 '하늘의 신, 콘도르'는 안데스의 진정한 주인, 인디오들이 안데스의 부활을 상징하는 피의 축제(자와르 피에스타)로 시작된다.

이들은 일 년에 한 번씩 이 축제를 통해 수난과 고통을 역사를 정신적으로 승화시키고 안데스의 부활을 꿈꾼다. 마을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외딴곳의 분지에 이들은 죽은 말을 내려 놓고 콘도르가 오기를 기다린다. 한밤중에는 영하 10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움막 속에서 숨죽여 기다리기를 20여 일. 드디어 콘도르가 죽은 말의 내장을 먹기 위해 내려 왔다. 배불리 먹어 움직이지 못하는 콘도르를 마을 청년들이 달려 들어 생포한다. 그리고 날쌔 황소의 허리를 뚫어 줄로 콘도르를 매달아 놓는다. 황소와 콘도르의 한판 대결이 시작되고, 드디어 날뛰는 황소를 제압하고 황소 등에서 커다란 날개를 펼치는 콘도르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피의 축제를 통해 인디오들의 부활에 대한 강한 믿음을 던져준 콘도르, 안데스 상공을 유유히 날아 가는 콘도르의 위용을 감상해 본다.

안데스의 역사와 인디오들의 삶을 살펴 봤다면 지금부터는 왜 이런 역사가 생겼는지를 지형을 통해 그 비밀을 풀어 본다.

볼리비아와 칠레를 잇는 거대한 대평원 알티플라노는 빨간 호수, 녹색 호수 등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초현실적 풍경을 자아내는데, 이 이질한 풍경이 가능한 이유는 안데스가 품고 있는 풍부한 광물질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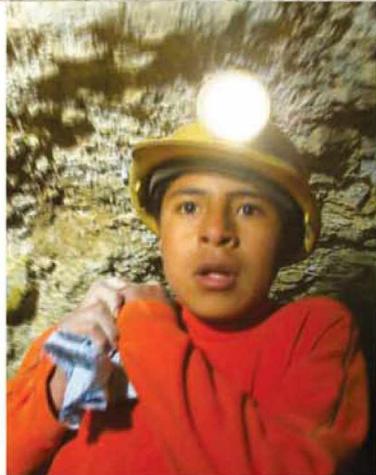
강한 모랫바람이 부는 해발 3,600미터의 척박한 땅 알티플라노는 특유의 지형적 특색으로 스페인은 물론 과거 타부족의 접근이 쉽지 않은 덕택에 안데스 고전기 문명의 특징이 현재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다. 농사짓기에도 살기에도 쉽지 않은 땅, 알티플라노.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척박한 땅을 선택해 수천 년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걸까, 그들에게 안데스 대지는 과연 무엇일까.

살아남은 자의 슬픔, 그러나 희망을 이야기하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안데스의 놀라운 경관은 광물을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이다. 그런데 신의 선물인 이 천연 자원은 오히려 인디오에게 비극을 선사한다. 서구 정복자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충분한 자원 때문에 인디오들은 최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와 안데스 인디오로 살아가고 있는 아프로 볼리비아노들도 마찬가지다.

16세기 세로리코 은광이 발견되면서 생긴 도시 포토시. 스페인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은을 갈취해 갔고, 21세기인 지금도 광부들은 광산으로 출근해 좁고 어두운 갱도에서 힘겹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포토시 광부들에게는 한풀이 같은 성 바르톨로뮤 축제가 있다. 나름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축제인데, 수백 개의 광부 조합이 각각 팀을 만들어 화려한 의상과 가면을 걸치고 춤추며 노래하며 하루를 즐긴다.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유명한 에콰도르의 오타발로는 안데스 인디오에게 구권회복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다. 시장(市長), 호텔 사장 등 예전엔 꿈도 꾸지 못했을 지위를 인디오들이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오타발로는 물론 남미 대륙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인디오 장이 서는 곳. 토요일장이 열리는 주말만 되면 안데스 전통음악이 온 거리에 울려 퍼지고, 직접 만든 각종 수공예품과 가죽들을 팔고 나온 인디오들과 몰려든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인구 3만 명의 이 자그마한 도시는 화려하고 특색 있는 볼거리로 전 세계 여행객들의 필수 관광코스로도 유명하다.





방송에서 다 못다 한 제작진 이야기



김진혁 공작소 박재형 PD, 김진혁 PD

다큐프라임 <안데스>는 어떤 이야기인가. 안데스는 지구 상에서 거의 사라진 원시적 대자연이 남아있는 곳이며, 동시에 지구 상에서 마지막으로 고대문명이 사라진 곳이다. 그리고 그곳엔 고대인들의 영혼을 가지고 살아 가는 안데스의 후에 인디오들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구 상 최고의 절경과 그 자연을 닮은 인디오들에 관한 이야기다.

창작 6부작이라는 대작이다. 촬영기간은 얼마나 걸렸나. 2008년 6월 말 캐로족의 '피의 축제' 부터 촬영이 시작돼서 10월까지 촬영만 석 달 반 정도 걸렸다. PD 2명에 카메라맨 1명, 조연출 1명 등 최소의 인원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창작 7,000킬로미터에 달하는 안데스 산맥을 차량으로, 말로, 때로는 두 다리에만 의존해 쉬지 않고 종주했다.

시청자들이 어떤 점을 포인트를 주어 감상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낯설고 또 굉장한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눈이 즐거울 것 같다. 감상 포인트는 느끼기 나름일 것이다. 낯설고 아름다운 풍경 위주로 즐길 수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인디오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이지만 우리와 같은 감정과 같은 정서를 공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다큐프라임 <안데스>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있다.

기억에 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임카의 마지막 후예인 캐로족을 만난 일이다. 제작진 집단의 캐로족을 찾아갔을 때, 아빠가 타지로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된 이곳은 외부인의 방문을 길조로 여긴다. 그래서 얼떨결에 제작진은 태어난 아이의 대부가 됐고, 간단한 세례와 함께 아이의 세례명도 지어줬다. 우리는 부르기 쉬운 '희망'이라는 한글 이름을 지어 줬고, 앞으로 다달이 얼마씩 모아 아이에게 작은 성의를 보내기로 약속했다.

다큐프라임은 보통 3부작이었다. 6부작이라는 다소 긴 호흡으로 첫선을 보이는데... 지난 2월 말에 방송됐던 <아이의 사생활>이 5부작이었다. 예전에 방송돼 호평 받았던 <아기성장 보고서>도 5부작이었다. KBS의 <차마고도>도 6부작이었고, 잘 만든 프로그램은 시간이 갈수록 입소문을 타고 시청률이 상승한다. 시간이 긴 만큼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인지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무엇보다 6부작이라는 대작인 만큼 완성도 면에서나 시청자 호응 면에서나 기대가 크다. (김유열 EBS 편성기획팀장)

역사책에서 막 튀어 나온 것 같은 모습의 잉카인들

안데스와 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우리는 잉카의 마지막 후예를 먼저 만난다. 해발 5,000미터의 안데스 산속 깊은 곳에서 분명을 등지켜 살고 있는 잉카의 후예, 케로족. 잉카제국이 멸망한 이래 스페인 정복자의 지배를 피해 도망친 잉카인들이다. 우선 이들을 만나러 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 제작진은 차로 현존한 산길을 꼬박 하루를 달렸다. 차로는 더는 갈 수 없는 산길에 이르러 말을 12마리 빌려서 촬영장비와 식량 등 짐을 잔뜩 싣고 걷기 시작했다. 원정에 가까운 촬영이었다. 어렵게 도착한 케로족 마을 '끼꼬 그란데'는 시간이 멈추어 있는 곳이다. 500년 전 잉카시대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마을에서 케로 사람들은 잉카시대에 사용하던 농기구를 사용해 감자농사를 짓고, 아마를 키워 그 털로 실을 짓고 그 실로 옛날방식 그대로 천을 짠다. 천을 짜는 방식도 그 분양도, 잉카시대 그대로임은 물론이다. 역사책에서 막 튀어 나온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 이들은 과거 어떤 역사를 갖고 있기에 이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일까. 1부에서는 잉카의 마지막 후예를 만나고 2부에서는 '정복의 기술'을 통해 500여 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안데스의 심장인 에콰도르에 위치해 365일 만년설로 둘러싸인 채 인디오에게 신성한 산으로 여겨진 침보라소 최고 봉을 등반한 사람은 에콰도르인이 아닌 유럽인 홀블트다. 홀블트에 이어 피츠로이, 다윈, 모레노까지 각종 산과 바다, 빙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름들이 인디오가 아닌 서구 유럽인들의 이름으로 안데스의 땅은 물들기 시작한다. 안데스 정복의 역사는 16세기 100여 명의 스페인 군대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수백 년간 인디오들의 식민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스페인 사람들은 이 극소수의 숫자로, 지구에서 가장 긴 거대한 땅 안데스의 물리적, 정신적 지배가 가능했을까. 주인을 잃은 땅,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안데스 정복의 역사현장을 밀도 있게 들여다 본다.



이프로몰리비아노의 '싸야', 아프리카의 리듬과 남미의 리듬이 만나서 이루어진 아프리카몰리비아노 만의 독특한 리듬과 춤이 바로 '싸야'다.